



U대회 염원 주렁주렁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오행원)가 최근 광주지하철 상무역사에 설치한 '2015 하계 U대회 유치 기원 소망나무'에 시민들이 대회 유치를 염원하는 메시지를 매달고 있다. 소망나무에는 지난달 31일까지 시민 700명이 소망을 걸었고, 같은 장소에 마련된 '소망의 벽'에는 1천여명의 시민들이 글을 남겼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알림

한·일 여자배구 진정한 챔피언 가린다

광주일보 창사 57주년 기념 **57** 창사

흥국금융그룹배 한일 V리그 탐 매치

전통의 라이벌 한국과 일본 여자배구의 왕중왕을 가리는 빅 매치가 광주에서 열립니다. 광주일보사와 광주시 배구협회는 한국 배구연맹 주관으로 광주일보 창사 57주년 기념 한일 국제배구대회를 개최합니다. 2008~2009 시즌 한일 양국의 프로배구리그를 통해 거러진 1, 2위 팀이 모여 이틀간 승부를 가리는 이번 대회는 국제 스포츠 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의 큰잔치가 될 것입니다. 한국팀은 이미 챔피언 결정전을 앞두고 있는 GS칼텍스와 흥국생명팀이 출전하며 일본팀은 아직 자국 리그가 진행중입니다. 광주시민과 배구팬 여러분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 일시: 4월 18일(토) 오후 2시, 19일(일) 오후 1시
- 장소: 광주 염주 종합체육관
- 주최: 광주일보사, 광주시 배구협회
- 주관: 한국 배구연맹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체육회, 광주시교육청, 전남도교육청
- 협찬: 흥국 금융그룹 HeungKuk Finance Group

光州日報社

2015 하계 U대회 실사 D-5

최고의 도전, 최고의 감동실사

짙 실사단 무엇을 보나

스포츠 인프라·시민 열기 집중 점검

市 “준비된 광주 확실히 보여주겠다”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이하 U대회) 광주 유치의 최대 관문인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현지 실사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관련기사 3면〉

스웨덴 버그 스웨덴 집행위원을 단장으로 한 5명의 실사단은 6일 오후 입국해 9일까지 광주가 대회를 치를 능력이 있는지, 시민들의 유치열기는 어느 정도인지 평가한다. 지역경제, 관광활성화와 체육인프라 확충, 국제도시 도약을 위해 U대회 유치를 진력해 온 광주시와 (재)광주U대회 유치위원회의 지난달 31일 FISU 실사준비단 2차 보고회를 갖고 막바지 유치전략을 점검했다.

◇실사단 점검 포인트=2015년 하계 U대회 개최 후보지 실사는 대만

타이페이(4월3일~5일)→광주→캐나다 에드먼턴(5월1일~4일)순으로 진행된다. 광주 실사단은 스웨덴 버그 FISU부위원장(스웨덴)을 비롯 루사야노 카브랄(브라질), 말렘베트 라레트(남아공), 케말 타머(터키), 히사토 이가라시(일본)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U대회 개최를 위한 도시 환경과 체육시설 등 도시의 인프라와 개최 역량, 시민들의 열기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항목은 FISU측이 유치신청서 제출 때 요구한 17개 항목이 주요 점검 포인트다. 실사단은 방문기간 동안 세차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스포츠 시설 ▲선수촌 ▲숙박 및 식사 ▲의료서비스 ▲안전·수송 ▲스포츠

조직과 경험 등에 대해 평가한다.

시민들의 유치열망이 얼마나 높은지를 가늠하는 것이 이번 실사의 핵심요소 중 하나다.

◇광주시 실사전략=시는 외형적인 화려함 보다는 실속과 실사 전략을 마련했다. 지난 2013대회 유치전과 달리 불필요한 행사를 최대한 줄이되 대회 개최 역량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실사단이 광주에 도착하는 다음달 6일 오후 4시30분 광주공항에서 환영행사와 9일 출국 환송 행사만을 치르기로 했다.

FISU가 이번 실사와 관련, 체육시설을 점검 점검기로 함께 따라 U대회 주경기장으로 사용될 월드컵 경기장, 호남대·동신대 체육관, 장성, 나주, 목포, 화순 등지 경기장 23곳의 활용 계획을 제시하는 등 개최 역량을 집중 부각할 방침이다. 이는 FISU가 대

형 경기장 신축 계획 보다는 기존 시설 재 활용에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한 데 따른 전략이다.

또 지난 2013년 대회 미비점으로 지적됐던 도시의 접근성, 체육시설 인프라를 철저히 보완했다.

여기에다 시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이 범정부 차원의 광주 U대회 유치위원을 약속한 만큼 정부의 확고한 지원의지를 실사단에게 전달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FISU실사단의 중점 점검 항목 가운데 하나가 정부의 지원 의지가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실사는 철저하게 광주의 대회 개최 역량을 부각하는 데 맞춰 진행될 것이다”며 “차분하고 실속있는 실사를 통해 광주 U대회 유치를 앞당길 것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500만달러 의혹 수사할 것”

대검 “노 전 대통령 직접 수사 계획은 없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박연차 대광실업 회장으로 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모씨에게 500만 달러가 흘러갔다는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관련기사 4면〉

홍남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노 전 대통령 측에 돈을 건넸다는 박 회장의 진술이나 관련 전표, 홍콩 현지법인 APC의 계좌 자료를 확보한 것은 없다. 하지만 의혹이 제기된 이상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여부와 관련해 “지금엔 계획이 없다. APC의 계좌를 봐야 한다”고 덧붙

였다. 작년 2월 박 회장의 홍콩 현지 법인 APC 계좌에서 500만 달러가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의 만사위인 연씨의 미국 계좌로 입금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다.

검찰은 또 라온찬 신한금융저주 회장 본인 및 친인척과 박 회장의 금전 거래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라 회장이 2007년 4월 50억원(신한은행 발행 수표)을 박 회장의 계좌로 입금했으며, 박 회장이 10억원 가가이를 인출해 김환기 회백의 그림 2점을 구입했지만 계좌에 돈을 다시 채워넣어 50억원이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소환조사를 받은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2006년 5·31 지방선거 직전 정산C.C에서 박 회장과 골프를 친 사실과, 미국 방문시 한인식당을 들른 사실은 인정했지만 박 회장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는 부인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다음 주부터 박 회장으로 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고위 공직자 및 정치인을 체포 또는 소환하기 위해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54 호남예술제

전통의 통합예술제인 전국대회

신상기간 | 문화·무용·국악부분 : 4월22일(화)~ 27일(일)
미술·체육부분 : 5월4일(월)~ 11일(일)

신상 | 광주광역시 호남문화재단 접수처, 문화재단, 무용, 민속악회 (신청방법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참조)

주최 | 호남문화재단

주관 | 호남문화재단

후원 | 호남문화재단

협찬 | 호남문화재단

문의 | 호남문화재단

홈페이지 | www.hnca.or.kr